

- **주요 뉴스:** 미국 민주당,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 확보, 부채한도 확대 처리 강조
 - 미국 보스턴 연은 총재, 과도한 통화긴축 위험이 증가
 - 영란은행 테레이로 위원,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금리인하 필요
 -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을 위해 광범위한 특별대책 발표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5.9%], 달러화 약세[-4.1%], 금리 하락[-35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 지수는 중국의 코로나 19 경제봉쇄 완화 기대 등으로 8월 이후 최고치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3.9%, 5.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하회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4bp 하락
- ※ 원/달러 환율(주간) 7.7% 하락, 한국 CDS 하락

		11/11일	11/4일	전주말대비			11/11일	11/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992.9	3,770.6	5.90%	국채 금리 10y	미국	3.81%	4.16%	-35bp
	유럽	432.26	416.98	3.66%		독일	2.16%	2.30%	-14bp
	중국	3,087.3	3,070.8	0.54%		영국	3.36%	3.54%	-18bp
	일본	28,264	27,200	3.91%	CDS 5y	한국	56bp	73bp	-17bp
	한국	2,483.2	2,348.4	5.74%		중국	79bp	102bp	-23bp
환율	달러지수	106.29	110.88	-4.14%	위험 지표	EMBI+	438	438	0bp
	유로화	1.0347	0.9957	3.92%		VIX	22.52	24.55	-8.27%
	엔화	138.81	146.62	5.63%		WTI유	88.96	92.61	-3.94%
	위안화	7.0973	7.1851	1.24%	원자재	구리	391.4	368.7	6.16%
	원화	1,318.4	1,419.2	7.65%		금	1,771.2	1,681.9	5.3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민주당,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 확보. 부채한도 확대 처리 강조

-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의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후보가 48.8%의 지지율을 얻어 공화당의 애덤 락셀트 후보를 제치고 승리. 이번 승리로 민주당이 상원 100석 중에서 50석을 확보하여 과반을 방어. 결선투표를 남겨둔 조지아주에서 패하더라도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 유지
- 상원에서의 승리로 민주당은 연방 판사 등의 임명이 용이해진 상황. 만일 조지아주에서도 승리한다면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정부의 일부 정책을 반대하는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민주당)의 영향도 감소할 전망
- 한편 이번 결과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좀 더 확실하게 임할 수 있다고 발언. 열린 재무장관은 민주당 정부가 주요 사안 처리 관련하여 좀 더 긍정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진단. 특히 부채한도 확대 문제는 연말 이전에 처리되기 원한다고 강조
-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신속하게 부채한도 확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경청하겠으나 최우선 목표는 지금 당장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 관계이나 갈등 관계는 아니라고 인식

- 설리반 안보보좌관은 중국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도 존재한다고 강조. 한편 IMF의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가 글로벌 경제에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

■ 미국 보스턴 연은 총재, 과도한 통화긴축 위험이 증가

- 콜린스 총재는 연준이 지나치게 정책금리를 높일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언. 다만 연방기금금리가 현 수준보다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그 동안 시행했던 금리인상의 효과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향후 정확한 금리인상 중단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

■ BofA와 JPMorgan, 미국의 고물가는 수 년 동안 지속될 전망

-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지난 20년 평균을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BofA의 Michael Hartnett). 연준이 심각한 경제적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매우 낮은 편(JPMorgan Asset Management의 Kelsey Berro)

■ 영란은행 테레이로 위원,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금리인하 필요

- 현재 상황에서는 '23년까지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24년에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하회한다면 내년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

■ 스위스 중앙은행 매첼러 위원,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 정책금리를 3.3%까지 높였으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한편 최우선 정책 과제인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은 내년 3/4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을 위해 광범위한 특별대책 발표

-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상환 기한 연장, 임대주택 건설 및 인수합병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16개 조치에 나설 방침. 이는 최근 당국이 내놓은 구제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
- 한편 리커창 총리는 추가적인 정부지원을 약속하며 경제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 아울러 당국은 고용 및 물가안정,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작동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광군제 실적 미공개. 매출이 전년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전체 매출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언론 매체들은 택배 운송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보도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14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 ECB 데 쿼도스 부총재 및 파네타 이사 강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가상자산의 미래, 소멸이 아니라 양분된 모습이 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Crypto's future may be divided, not dead)

- 글로벌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유동성 부족과 고객 자금 철수, 경쟁사인 Binance의 인수 실패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주류 금융은 아니지만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08년 리만 브라더스 충격의 가상자산 버전으로 평가
-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정부통제를 벗어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는 경제주체들이 상당하기 때문. 또한 민간부문의 가상자산이 급감해도 정부가 이러한 기술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등의 발전을 추진
-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은 한편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영역에서의 시장과 함께 중앙은행이 포함된 통제된 시장 등 2개로 양분되어 생존할 전망

■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 중간선거 이후 통화정책의 중요도 증가 예상 - Financial Times

(What the midterms mean for investors)

- 중간선거 이후 의회는 팽팽하게 양분. 이는 의회활동이 교착 상태에 직면한다는 의미. 만일 '11년과 같은 부채상환 확대 관련 극단적 갈등만 피할 수 있다면 재정정책의 변동성을 제거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결과는 투자자에게 긍정적
- 향후 재정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제한될수록 연준의 통화정책이 기업실적 및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전망. 일례로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 및 경기침체 가능성이 대두되어도 의회가 양분되어 신속한 경기 대응책 마련이 어려울 가능성

■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구조적인 하락 추세 여부는 불확실 - WSJ

(A Tentative Inflation Break)

- 10월 CPI 발표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긴축이 효과를 나타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안도하는 모습이 관측. 그러나 다른 지표들은 연준이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시사
- 연준이 수요를 잠재워 물가를 낮추는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도 존재
- 또한 물가상승이 진정되어도 고물가 기간 중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저하된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시키려면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미국 증시,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악화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 WSJ

(Move Over, Inflation: Here Comes the Earnings Crunch)

-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주가가 급등.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주가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위험을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을 소지
- 시장에서는 내년 4% 이상의 기업이익 증가를 기대. 하지만 통상적으로 경기침체 시기에는 기업이익이 두 자릿수의 감소를 기록. 향후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개선되어도 경기침체 하에서의 기업실적 악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

■ 영국의 생계비 위기, 점진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블룸버그

(Cost-of-Living Crisis Is a Slow Burn for UK Consumers)

- 영국 가계는 아직 높은 물가와 금리 상승, 심각한 에너지 비용에 굴복하지 않았고, 다양한 지표 기준으로 소비 부문은 생각보다 양호
- 하지만 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19 관련 제약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도래하고,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가능한 많은 지출을 하는 영국인들의 경향에 기인할 가능성
- 진정한 위험은 '23년 1월부터 시작. 1월은 항상 비수기였으며, 난방요금은 전년보다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 모기지 금리 또한 상승할 것이며, 파운드화 약세 역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중산층도 타격을 받을 소지

■ 글로벌 주택가격, 광범위한 하락 압력에 직면할 우려 - Financial Times

(The global housing market is heading for a brutal down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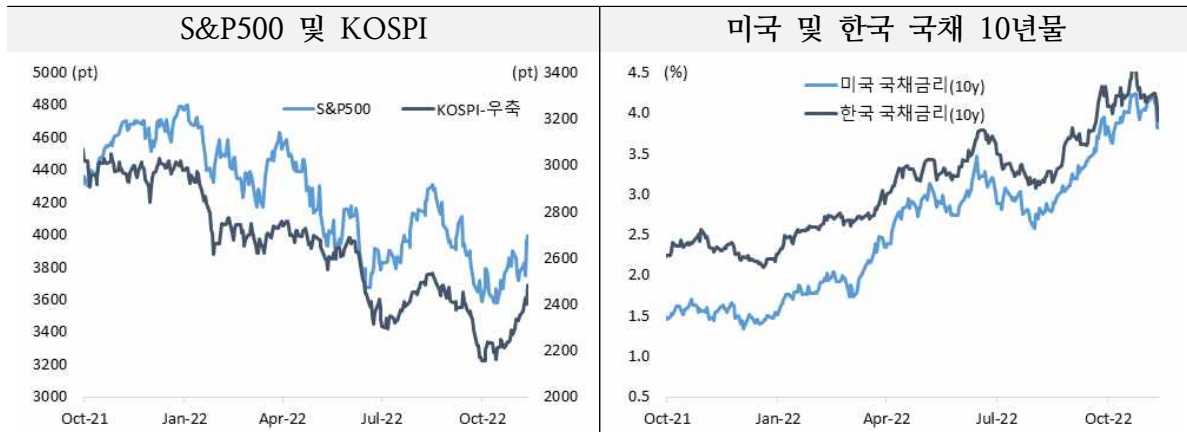
■ 채권투자자, 경기침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 대비가 요구 - Financial Times

(Fund managers position to woo investors back to bonds)

■ 암호화폐 가격 하락, 과도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후유증일 가능성 - 블룸버그

(SBF and Crypto's Collapse Are Part of the Pandemic Hang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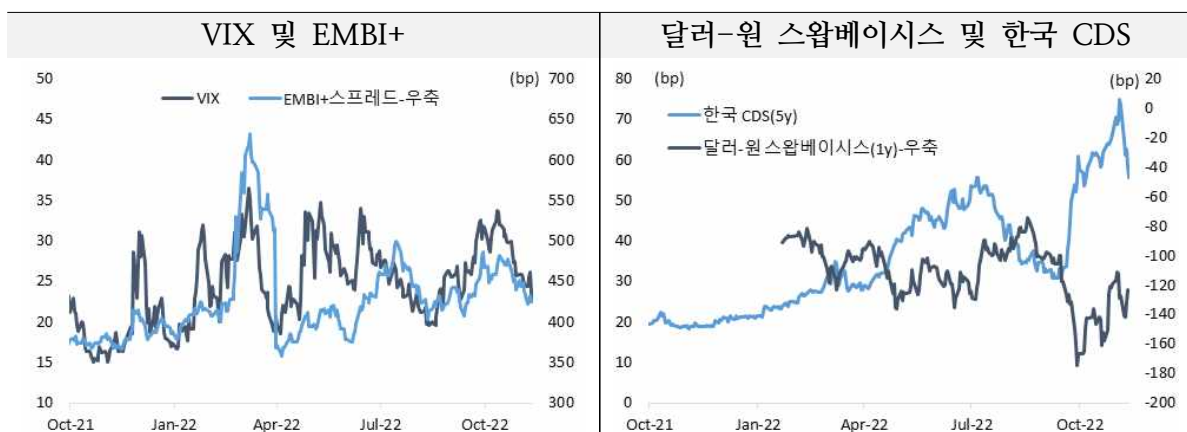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